

공무원 육아휴직제 인기

지난해 2천6백명신청...가사휴직도 2백95명

96.8.23

공무원의 육아 및 가사휴직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호를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세환 기자

22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남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2천6백47명이며, 가사를 위해 휴직한 경우도 2백95명(남 71, 여 2백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하가 1천6백95명으로 가장 많고, 6월 이하 3백81명, 3월 이하 3백7명, 9월 이하 2백64명이다.

가사휴직도 1년 이하가 1백6명으로 가장 많으며, 3월 이하 80명, 6월 이하 77명, 9월 이하 32명 순이다.

이 두 제도는 가정생활과 직장 근무의 원활한 조화를 위해 지난 94년 12월 도입된 것으로, 자녀 양육이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